

광주시 '7대 문화정책'으로 문화성장판 키운다

문화·스포츠 연계한 이벤트 마련...국립문화시설 유치 등 인프라 확충 책 읽는 인문도시·AI융합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디자인비엔날레 개최 등

'아시아 대표 문화도시' 광주시가 '2025년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7대 문화정책'을 기반으로 문화성장판 확장에 나선다.

◇민생과 상생하는 '광주 방문의 해' 붐업= 광주시는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와 스포츠를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체류형 관광객과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우선 광주 FC와 KIA 타이거즈의 홈 경기를 활용해 광주를 찾는 스포츠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체험형 마케팅을 선보인다. 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작품 속 장소인 전일빌딩245를 중심으로 그 시절 습격을 되새기는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월에는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기념행사도 연다.

◇지역특화 문화인프라 확충 문화중심도시 강화= 시는 올해 지역 미술계 숙원사업인 국립현대미술

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회도서관 등 국립문화시설 3종 유치를 집중한다.

또 2004년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이 2031년 만료됨에 따라 5대 문화권 조성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완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이 밖에도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상무소각장 문화재생, 아시아캐릭터랜드, 아시아예술융합창작센터, 아시아문화예술촌 등 시민 눈높이에 맞춘 일상 속 문화향유 공간 조성 사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책 읽는 인문도시 광주 조성 본격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시점으로, '책 읽는 인문도시 광주' 조성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발표한 '인문도시 광주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설 '소년이 온다' 등 인문자산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서점과 연계한 활성화 프로그램 등 '책 읽는 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그려나간다.

또 '도심 속 북극극 빛고을 책마당'을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새롭게 선보인다. 1차지구 1사립도서관 시대를 목표로 하남도서관을 하반기에 개관하고, 연말 준공 예정인 광주 대표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기반시설 확충에도 집중한다.

◇인공지능과 문화융합 밸류 업(Value-Up)= 광주시는 애니메이션·웹툰, 첨단영상, 게임산업 등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예비창업, 초기창업, 도약기, 기업공개(IPO)까지 단계별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의 가치를 극대화해 첨단기술과 융합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표 탑(TOP) 기업' 육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3년간 총 131억7000만원을 투자해 지식재산과 인공지능을 융합하는 첨단기술 융합 확대, 지식자산을 토대로 관광 융합 콘텐츠를 개발하는 지역특화거점 강화, 지식재산의 상품화 및 유통을 지원하는 콘텐츠상품 확장에 나선다.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발판 디자인 도시

조성= 시는 올해 202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창설 20주년을 맞아 총감독으로 최수신 미국 SCAD 교수를 위촉했다. 최 총감독은 오는 3월 광주만의 독특한 색깔을 담은 '디자인비엔날레 마스터플랜'을 공개한다. 시는 국내외 주요 디자인 전문가와 학계, 산업계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 개최로 광주가 디자인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박차= 광주시는 오는 9월 열리는 광주세계(장애인) 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문화관광·홍보·교통 등 38개 지원과제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한 도시에서 일반과 장애인 선수권 대회가 동시에 열리고, 역대 세 번째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는 만큼 총사업비 38억원을 들여 장애인 편의 시설을 완비한 광주국제양궁장 시설 확충공사 등도 진행 중이다. 시는 또 저개발국가 선수단을 초청해 양궁 기술을 지원하는 등 양궁중심도시로서의 국제적 위

상도 높일겠다는 의지다.

◇도심 전체를 시민 문화향유 무대로 공유= 공연장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당신 곁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당신 곁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시립예술단과 민간예술단체에서 기획한 국악·발레·오페라·클래식·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상·하반기 월 2회씩 총 60회 선보일 계획이다. 또 중외공원내 생태·미디어아트 융합 '아시아 디지털가든'은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지난해 조성한 문화정원·생태예술놀이정원과 함께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배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은 "광주시는 올해 국립문화시설 3종 유치, 광주방문의 해 붐업, 책 읽는 인문도시 조성, 문화콘텐츠 산업 전략 육성 등 7대 문화정책에 집중해 지역문화 성장판을 확장시켜나갈 계획"이라며 "문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와 민생이 상생하며, 문화를 체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역·대학 동반성장 '전남형 RISE' 본격 가동 김영록 전남지사가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전남 RISE위원회'에 참석,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100일간 불합리 규제 집중 발굴

광주시가 오는 5월 27일까지 100일동안 시민 삶 곳곳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개선에 나선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정 목표인 '2025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 소비·착한 금융·착한 일자리)' 정책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 5대 분야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한다. 불합리 규제 발굴 5대 분야는 민생경제, 일자리·산업,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인구·돌봄, 일상 생활 등이다.

민생경제 분야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영·영업·고용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일자리·산업 분야는 일자리 창출, 청년·경력단절자·노인 등 취업, 지역투자,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항을 점검한다. 대자보도 분야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중심도시 조성을 저해하는 사항을, 인구·돌봄 분야는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돌봄, 복지, 교육 등을 위한 개선 사항을, 일상생활 분야

는 국민안전, 소방, 보건, 문화, 관광, 주택, 환경 등 각종 생활 불편을 접수한다.

불합리 규제 발굴은 오는 5월 27일까지 누구나 접수 가능하다.

시는 발굴된 규제 중 법령 등 중앙부처 검토가 필요한 중앙규제는 '규제개혁신문고(sinmungo.go.kr)'에 직접 건의해 부처 검토 과정을 종합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또 조례, 규칙, 계획과 관련된 지방규제는 자치구와 함께 직접 검토하고, 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통해 해당 부서와 자치구에서 적극 개선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병철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규제 개선은 꼭 예산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지역 산업 성장과 시민 일상생활 등에 직접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모든 기관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친환경 벼 인증 확대로 쌀 적정 생산 유도

신규 1800ha까지 전환...직불금 단가인상·공공비축미로 전량매입

전남도가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2020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친환경 벼 재배면적을 올해 증가 세로 전환, 쌀 적정 생산을 통한 공급과잉 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신규 전환 목표는 1800ha다. 친환경 벼가 일반 벼에 비해 생산량이 적은 대신 가격은 높고, 수요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0년 3만1858ha에 달했던 친환경 벼 인증 면적은 2021년 2만7923ha, 2022년 2만3461ha, 2023년 2만2303ha, 2024년 2만1170ha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친환경직불금 지급 단가를 인상하고,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논 1ha 당 유기는 70만원에서 95만원, 무농약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각각 친환경직불금 지급 단가를 올리고, 6년 차부터 지급되는 유기 지속직불금은 35만원에서 57만원으로 인상했다. 농가당 지급상한 면적은 현행 5ha에서 30ha까지 확대한다.

친환경 벼는 일반벼 수매보다 5% 인상(현행 특등가 6만3510원·40kg 6만8780원)됐다. 현행 1만ha의 친환경 벼 공공비축 수매량을 15만ha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전량 수매할 방침이다. 매입한 친환경 쌀은 군급식, 복지용 쌀로 공급한다.

신규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진입 장벽도 크게 낮춘다. 신규 농가가 올해 친환경 직불금을 받도록 무농약 인증을 처음 신청하면 경영 관련 1년치 자료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급 기준도 현행 전년 11월 1일부터 인증을 받고,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인증을 유지하면 직불금을 지급하지만, 올해는 예외로 신규농은 10월 31일까지 인증서를 제출하면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친환경 벼 재배 확대를 위해 기존 친환경농업단지에서 일반 재배농가와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 대행 시스템이 갖춰진 농협과 들녘별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재배면적을 늘릴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장에 윤익 전 아트광주 총감독 선임

광주시립미술관장에 윤익(사진) 전 아트광주 총감독이 선임됐다.

광주시는 17일 윤익 씨를 시립미술관장으로 선임하고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립미술관장에 지역 인사가 발탁된 것은 지난 2018년 9월 이후 7년만이다.

전남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윤익 관장은 중앙대 대학원 미술학 석사, 파리8대학 대학원 조형예술학 석사, 파리1대학 대학원 조형예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을 거쳐 광주미디어아

트페스티벌 총감독, 광주국제미술전람회(아트광주) 총감독을 역임했다. 또한 지난 4년간 아트 광주 총감독을 맡아 지역 미술시장 성장을 비롯해 미술축제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익 관장은 "ACC를 비롯해 국내외 국·공립 미술관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다채로운 전시를 기획해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skypark@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